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8:1-10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땅에서 제자들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준 점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일어난 것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칠병이어 때 이방인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이방인 무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불쌍한 무리는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들을 본 예수님은 오히려 가엾게 보셨습니다. 자신의 힘든 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우리들은 본문 말씀의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곤 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함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시며, 그 능력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필요한 지 모를 때에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섬김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